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3주일
제31권 3호(가해) 2010-12-12

[묵상]



'툰즈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

<강현주,
2010년,
유채,
인제대 의대, 김해>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광야에선
회개하고 하늘 나라를 준비하라는
예언자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곳,
예언자의 외침에 따르라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저희들은 여기에 무엇을 하러 왔나?
소풍가서 구경할 수 있는 것
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찾지 마라.
여기엔 메시아가 있고 구원이 있다.
광야에서 예언자와 자신을 찾지 않고
여기에서 메시아와 구원을 찾지 않으니
도대체 저희들은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나?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으니
어떻게 얻을 수 있나!

- 框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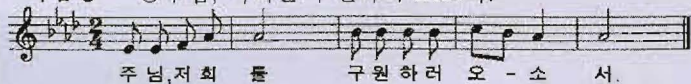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립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조지 G 가보라 (생)
주 일 낮 미사	(연)이재원 요한 & 이수림 마리아, 이현호 요한, 고준희 제임스, 김문성 & 홍봉순, 이상범 다윗, 엄은섭 도로테오 (생)오세원 아타나시오 & 오혜숙 루시아 가정 이상현 루시아, 김숙희 오티리아, 이덕철 루까, 권순봉 요안나, 조은하 올리아나, 이문오 요한, 이민상 요한, 김기정 루치아, 민석준 토마스, 민영준 마르코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35,1-6나.10

화답송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주시네.○
○주님은 눈 먼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2독서 야고보서(James) 5,7-10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 음 마태오(Matthew) 11,2-11

영성제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27	130
봉헌	255	264
성체	376	309
파견	129	133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안락사의 비극

사람들은 죽음에 다가가는 순간에 도덕적인 의무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완전히 맑은 의식 상태에서 하느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별을 고려하면서, 선임 교황님들의 교도권과 조화를 이루고, 가톨릭교회의 주교들과 일치하여, 본인은 안락사가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고의적이고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살해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교리는 자연법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회 전승은 이 교리를 전달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은 이 교리를 가르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행위에 자살이나 살인에 해당하는 악의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66). 자살은 언제나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전통은 항상 자살을 대단히 사악한 선택으로서 거부해 왔다. 어떤 심리적, 문화적, 사회적 여건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향한 선전적 경향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주관적인 책임이 감소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자살은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이다. 실제로, 자살에는 자기에의 거부가 담겨있으며, 이웃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들과, 전체 사회를 향한 정의와 자비의 의무 포기가 담겨있다. "주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며 사람들을 지옥문까지 데리고 가실 수도 있고 데려 내 오실 수도 있다." (지레 16,13; 토비 13,2)고 이스라엘의 옛 현자는 기도 속에서 이 주권을 선포한다. 자살의 가장 깊은 실재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하느님의 주권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고 있다.

자살을 범하려는 다른 사람의 의향에 동조하여 이른바 "자살 방조"(assisted suicide)를 통해 자살을 행하도록 돕는 것은, 비록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불의한 일에 협조하는 것이며, 때로는 실질적인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 문제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대목에서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한다. "타인을 죽이는 것은 결코 합법적인 일일 수 없다. 비록 그 사람이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려서, 육체의 구속을 끊기 위해 애쓰면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애원하여 죽기를 원하고, 실제로는 그런 요청을 했을지라도 마찬가지이다. 환자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경우에도 결코 합법적인 일일 수 없다." 고통을 받고 있는 타인의 생명을 자기가 떠맡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거부가 동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락사는 그릇된 자비라고 보아야 하며, 자비에 대한 정말 위험한 "왜곡"이 참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준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계속)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인 예언자와 우리 교회

“자신을 위해서만 부를 소유하는 이는 죄를 짓는 것이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빛을 갚는 것과 같다.”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돌볼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애덕의 실천은 자선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 문제의 사회적 정치적 차원들에 대처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무한 경쟁’의 세상살이가 당연이며 필연이라고 믿는 분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앞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교회의 교리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번역 출판한 ‘가톨릭교회 교리서’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사목헌장’과 ‘간추린 사회교리’에서 관련된 부분의 일독을 권합니다.

구약과 신약성경을 관통하는 주제 하나를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하지 않고 ‘하느님의 인류 구원’이며, 구약의 소재는 이스라엘의 이집트 노예생활에서의 해방(탈출), 신약의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의 부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노예생활이든 어둠과 죽음의 굴레이든, 비구원과 억압의 상태는 있게 마련일 수도 있으나, 신앙의 길은 끊임없는 해방과 탈출의 몸짓으로 땀과 피를 흘리는 고난의 여정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 “맥폴린 손”과 “검인 무릎”으로라도 기어서라도 걸어야 할 길입니다.

눈과 귀가 멀고 말을 못하고 다리를 절더라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길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구원”과 “주님의 해방”을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1독서와 복음).

혹여 신앙의 길이 “끝없는 즐거움이 그들 머리 위에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 하며,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1독서)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의 “왕궁”(복음)을 보장해주는 지름길 혹은 부적이라고 믿는다면, 성경과 교회의 고백과 가르침은 귀에 거슬리고 심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2독서). 고난과 끈기는 누구나 건너뛰고 싶은 장애물이지만, 이를 피해서는 안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오늘을 특별히 자선주일로 기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구원과 해방을 갈망한다면, 끈기를 갖고 정의의 의무와 애덕(자선, 빈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대처)을 실천해야 하고, 그 때문에 영광을 탐하기보다는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
리라”(영성체송).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

서울대교구 신수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권오상 바오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전지요 글라라	권순길 세실리아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대림 시기 †

이제 세번째 대림초를 밝혔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구체적인 자선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형제자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 ◆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21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 성사일정 같음)
 - 대림시기 중 미사전후에 드리는 고해성사는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낮시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보속 : ㉠마태오복음서 통독 ㉡선행1회 ㉢주모경 기도 중 두가지 선택
- ◆ 본당 신부님 판공출장 관계로 평일미사 시간 변경
 - 15일(수), 16일(목), 22일(수) : 오전 8시30분 아침미사
- ◆ 성탄 밤미사 : 24일(금) 오후 9시
- ◆ 성탄 대축일미사 : 25일(토) 오전 11시(특전미사: 7시pm)
- ◆ 송년미사 및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 12월31일(금) 밤11시30분
 - * 24일/31일(금) : 아침 평일미사 없습니다.
-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미사 : 1월1일(토) 오전 11시(첫토요일 성모신심미사 없습니다. 특전미사 : 7시pm)
- ◆ 새로 개정된 메디케어 & 메디칼 건강플랜 설명회

2011년에 새로 개정되는 Medicare & Medical 건강플랜 설명회. 질의응답을 통해 새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상담(보험전문가)

 - 일시·장소 : 오늘 주일(12일)오후 1시, 강당

- 내용 : 65세이상 은퇴자, 노약자, 장애인 대상
- 주관 : 남가주 한인가톨릭 장애인복지회 ☎(213)387-3301

- ◆ '천상의 어머니 푸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장소 : 오늘 주일(12일) 오후 3시, 성당
 - 레지오 활동단원, 협조단원과 관심있는 교우들은 모두 참석하시어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기 바랍니다.
- ◆ 세례식과 축하식
 - 일시 : 12월19일(주일) 낮미사 중
 - 세례식이 끝난 후 강당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12명의 새 교우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 ◆ 제단체 송년모임
 - 양업회 : 12월19일(주일) 오후 5시, 강당
 - 요셉회 : 12월26일(주일) 낮 12시30분, 강당
- ◆ 성탄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성탄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 일시 : 12월19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계시관 안내 참조
- ◆ '거룩한 독서' 성탄방학 중입니다.
 - 개강 : 수요일 1월5일 오전10시, 금요일 7일 오전 9시30분
- ◆ 제대회 '성탄구유' Set 구입

올해 성탄구유를 새로 꾸밉니다. 비용은 제대회원들이 봉헌한 회비로 마련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대회 봉헌함은 사무실에 설치되어있으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 ◆ 주일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 캔푸드(Can Food) 수집
 - 불우이웃을 돕기위해 캔푸드(통조림)를 12월19일(주일)까지 수집합니다. 고기, 채소, 과일, 피넛버터 등 통조림된 품목을 모으니 협조해주세요.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12일(주일) : 하버/카슨(설렁탕 \$3)
- 12월19일(주일) : 토런스 동2반(우거지된장국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국세찬	김광자	김기정	김대우	김병학	김선재
	김성현	김영경	김영길	김옥보	김옥찬	김원호
	김유숙	김정희	김종렬	김주량	김호순	남성철
	노혜숙	민찬기	박광자	박씨니	박인식	박주현
	방정복	석순영	송기철	신순철	안민수	안재만
	이근모	이병우	이상식	이연행	이영희	이은록
	이인두	이태옥	이효세	임연조	장영우	장영진
	정병훈	정연영	정지숙	조화숙	주용범	차병용
	채양식	최금옥	최기남	최이원	최태훈	한연만
	한혁수	황학수	영희가보라	박제이콧		
	합계 : \$4,640					
미사헌금 : \$2,785						
은퇴수도자 헌금 : \$2,828						

성전헌금	국세찬	김광자	김기정	김대우	김병학	김선재
	김영길	김옥보	김원호	김유숙	김정희	김주량
	김호순	남성철	노혜숙	민찬기	박광자	박씨니
	박인식	박주현	방정복	석순영	신순철	안민수
	안재만	이근모	이병우	이상식	이영희	이은록
	이효세	장영우	정지숙	조화숙	주용범	차병용
	채양식	최기남	최이원	최태훈	한연만	한혁수
	영희가보라	박제이콧				
합계 : \$3,280						
감사헌금 : 박종열,윤석구,정미영 특별목적헌금(익명) : \$20,000.00						

◆ 주일학교 성탄제

- 일시 : 12월18일(토) 오후 2시~4시
- 장소 : 성당
- 대상 : 유치부~12학년
- 모이는 시간 : 각 학년마다 다르오니 담당 교사나 자녀에게 알아보시고 그 시간에 맞춰 자녀를 데려오시기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일학교/한국학교 겨울방학

- 12월26일/1월2일 두주일, 수업 없습니다.

◆ 배론 청년회 회원 모집

"평범한 신앙생활은 거부하고 있는~데~"

- 청년이세요?
- 혼자 미사드리기 심심하세요?
- 토요일 밤을 뜻깊게 보내고 싶으세요?
- 주님과 함께하는 백삼위 청년회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 * 배론 청년회 미사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을 교회로 많이 인도합시다.
- * 모임일시 및 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성당 강당
-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청년회장 ☎(310)650-6057
- 박소영 프란체스카 부회장 ☎(323)313-7255

◆ 2010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12월 중에 내주세요.

-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내년초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 중에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 기록(2010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남가주 소식

◆ 남가주 ME 송년파티

- 일시 : 12월18일(토) 오후 6시
- 장소 : Double Tree 호텔(13111 Sycamore Dr. Norwalk)
- 주관 : 남가주 한인 ME 운동본부
- 문의 : 백삼위 ME 대표부부 ☎(310) 347-1665

◆ 이냐시오 성인의 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 1월12일(수)~17일(주일)
- 장소 : 오렌지카운티 매리우드 피정의 집
- 주제 : '탕빈 충만' (이영석 예수회 신부 지도)
- 신청 : 최아우렐리아 (562)233-7163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	--

다음 주 단체 모임

12월 사목회	
---------	--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12/10(금) 오후 7시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12/11(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2/10(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주량 요한 782-8549 12/18(토) 오후 6시
	2	이크리스 아카토 619-7763	박미카엘 316-7608 12/11(토) 오후 5시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진숙 로사 543-9051 12/13(월) 오전 10시30분
	4	이은록 요셉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최옥희 데레사 423-9075 12/17(금) 오후 7시30분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김행선 올리아나 972-9193 12/8(수) 오전 10시30분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김희연 루시아 750-4051 12/11(토) 오후 6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정동호 하상 바오로 780-9055 12/25(토) 오후 5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혜경 테나타 808-5005	서창호 바오로 968-1344 12/17(금) 오후 7시30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도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377-6659 12/10(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배재일 미카엘 544-9460 12/10(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12/17(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12/14(화) 오전 10시30분

제27회 자선주일 담화문

자선은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주고, 하느님께서서는 자선을 기억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
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
기를 빕니다.”(1코린 1,3).
한국 천주교회가 자선 주일
을 제정한 지 올해로 스물일
곱 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과 복음화를 위해 굳은 신앙심
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분께 마음과 정성을 다
하여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인 어려움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
해 열심히 일해도 존엄한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
럼 온갖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잠시 틈을 내어 자
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겨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부서지고 깨어진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 몰
라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세
계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한 채 하느
님 없이 살아 온’(에페 2,12) 결과일 것입니다. 하느님
에 대한 믿음을 외면하면 하느님 없이 살아가게 됩니
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
면 누구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버
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
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
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 참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
여 주신 삶과 죽음, ‘모든 이를 위하는’ 그분의 구원 활
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웃을 위해
살아가라고 부단히 요청하셨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나
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무너뜨리고 ‘너를 위한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너를 위해 사는 길’만이 나와 너를 살리는 공
생과 상생의 길임을 인식하고, 나의 것을 이웃과 나누

산타가 되는 날, 자선주일입니다

고 나를 버리고 희생하여
이웃을 살리는 일에 헌신
해야 합니다. 탐욕으로 어
지러워진 사랑의 질서와
너까지도 포함하는 사랑
의 사회성을 회복해야 합
니다.

교회는 매년 자선 주일
을 통하여 신자들이 하느
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선(慈善)’이라는 글자에는 어머니의 사랑, 도덕적 최
고 단위의 가치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우리 모
두의 어머니이듯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는 교회를
대신해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느님께서서,
자선을 베풀되 아까워하지 말며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배고
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선은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주며,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토빗 4,7-16; 12,9 참조). 또한
우리의 자선을 영원히(집회 40,17 참조), 기억할 것(사
도 10,31 참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함께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십
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
랑 이외에 다른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본
업도 사랑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하느님
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자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뿌려 놓은 사랑의 씨앗이자
열매입니다. 나의 유일한 본업도 하느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모든 시간과 재화는 헛된 시간이고 낭비된 재화일 뿐입
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에 사랑의 길을 닦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사랑이신 하느님 때문
에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자선 주일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안 명 옥 주교